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 개최

집중호우 대비 사전예찰 강화

진안군, 피해 최소화 위해 비상 대응 체제 구축

진안군은 지난 14~15일 관내 지역에 예정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안천, 정자천 무통천을 중심으로 물놀이 시설, 저지대 도로, 하천변 산책로 등을 사전 통제하고, 마을방송과 재난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 등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 옹벽, 석축 등에 대한 예찰을 지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장마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나갈 것"이라며 "협업부서 및 읍·면에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재난은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과잉대응 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7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서... 19개국 태권도 선수 96명 등 참가

2023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가 지난 15일 개막해 17일까지 3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주최를 하고 대한태권도협회(KTA)와 태권도진흥재단(TPF)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북도, 무주군이 후원하는 것으로, 19개국에서 선수 96명을 비롯해 심판과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15일 개막식을 겸해 열린 환영만찬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태권도진흥재단 이종삼 이사장 직무대행,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각 국의 주한대사들과 문화체육관광부, 또 태권도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는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는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세계태권도연맹 올림픽 랭킹 70위 이하 선수들의 무대"라며 "유망주들의 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가 15일 개막해 17일까지 3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는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남녀 체급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일에는 여자 -49kg, -57kg, -67kg, 남자 -58kg, -68kg, ~80kg 경기가, 16일에는 +68kg, -67kg 남자 +80kg, 여자 +67kg, 남자 +80kg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수들은 지난 11일 무주로 들어와 태권도원 경원관과 운영센터 대강당, T1경기장 등지에서 팀 훈련과 교육 등에 참여하며 현지 적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선수들은 "태권도 성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태권도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무주의 자연경관도 아름다웠고 여러 나라 선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는 올림픽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신인선수 발굴 등 태권도 대중화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지난 2021년 신설했으며 2022년 첫 대회 때부터 매년 태권도원에서 개최하기로 추후 추과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측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원을 품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는 세계 태권도성지로서 영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를 비롯해 국제유망권퍼런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대회와 행사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역량 있는 태권도 행사들을 새롭게 유치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원을 품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는 세계 태권도성지로서 영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를 비롯해 국제유망권퍼런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대회와 행사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역량 있는 태권도 행사들을 새롭게 유치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종섭 장수군의원, 상수도 요금 인하 촉구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실시해 상수도 요금 인하를 통해 군민 경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13mm 규격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2,310원으로 현재 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감면 전 요금은 전라북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종섭 의원은 "현대의미 공식



화됨에 따라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면이 아닌 수도요금 자체의 인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집하는 것보다 유수율 제고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직간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물가 폭등과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밝히며 상수도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공직자 역량강화 나선다

지방자치연구소와 교육협력 사업 관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지방자치연구소(주)와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4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은 공무원 역량강화와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지방자치연구소(주) 이영에 대표는 무주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그리고 두 기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계기로 무주군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연구소(주) 부설 웰퍼공직자교육원에서 제작한 공직자 의무교육 80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사회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과제 해결책 찾기,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이해 높이기 등 비롯해 △공직자 개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공직자들이 맞춤형으로 제작된 사례실무 위주의 전문 교육을 받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1년을 내다보며 공직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기른다는 말을 되새기며 무주발전 위해 공직자 능력개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장마철 전기화재 주의하세요"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장마철에 접어들며 방파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장마철(6~7월) 화재는 총 8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누전·단락·과열·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총 204건으로 전체 장마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23.8%를 차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수소방서는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와 실내기 단절전선 사용 △에어컨 장시간 사용 지

양 및 실외기 통풍 잘되는 곳에 벽체와 10cm 이상 이격해 비치 △누전차단기 월 1회 이상 점검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 부분 노출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전기용품 안전수칙들을 준수해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장마철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진안고원 지역대 발대식

지난 1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진안고원 지역대원들(32명) 및 지도자(4명) 등 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참여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스카우트 대원들과 교원 지도자의 참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구연합회장인 전춘성 진안군수와 진안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대식 축하와 건강한 복귀를 격려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으로 이번 제25회 세계잼버리는 '너의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전라북도 부안군

에 위치한 새만금 일원에서 153개국 4만3000명이 참가하는데, 이 가운데 진안군은 지역대원 및 지도자 총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고원 지구연합회장(진안군수)은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제는 '너의 꿈을 펼쳐라'로 스카우트 운동의 미래인 대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국제활동을 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자세를 배우고, 안전하게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진안군에서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6000여만 원 부과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6천여만 원(1만2,347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 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공동주택 등 부동산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차등 적용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 45%에서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43~45%로 조정되어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사업장 근로자 통합건강관리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한국마사회 장수목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건강관리를 시작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통합건강관리는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사업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들은 기초검사 및 체력검사를 시작으로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 교육을 받았으며, 사전·사후 BMI, 체지방률, 복부 둘레 측정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상담 및 운동 지도도 이뤄졌다.

또한 근로자 금연 상담 및 교육, 개인별 영양 및 건강행태 상담, 심뇌혈관 및 당뇨 관련 교육 등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